

## 『조선환여승람-영암군편』의 지역 인물 표상화 양상 고찰\*

권혁래\*\*

### 국문초록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은 1930~40년대에 유학자 충남 공주 출신의 이 병연(李秉延)이 중심이 되어 편찬한 사찬(私撰) 읍지이다. 이 논문에서 『조선환여승람-영암군편』의 사찬 읍지로서의 특성 및 내용에 대해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환여승람-영암군편』에는 영암 세거 가문의 인물들이 기술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연주(延州) 현씨(玄氏)의 가문 인사들이 20대에 걸쳐 40명이나 대거 등재되어 있다. 이는 사찬 읍지 영암군편의 편찬과정에서 1930년대 호남지방의 대표적인 경제인 현준호가 출판비를 후원하면서 조상 현양을 위해 영향력을 미친 것과 상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조선환여승람-영암군편』 ‘삼강오륜’ 편에는 열녀 24명의 삶과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남편사망 뒤 행동에 따라 생존형, 사망형, 두 유형으로 분류된다. 생존형은 남편이 사망한 뒤 부인이 살아서 가족봉양 및 자녀교육 등의 행위를 한 유형이다. 사망형은 남편이 사망한 뒤 부인도 죽음을 택함으로써 사랑 및 절의를 표한 유형이다.

\* 이 논문은 2019년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왕인박사현창협회 학술대회(2019.11.28.)에서 사찬 읍지 『조선환여승람-영암군편』에 형상화된 지역 인물에 대해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논문을 통해 『조선환여승람-영암군편』의 성격 및 영암 지역의 인물 형상에 대해 객관적으로 고찰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용인대학교 용오름대학 부교수. hrkwon3@hanmail.net

셋째, 영암군편의 편찬자는 백제인 왕인 박사와 통일신라 도선국사의 행적에 관한 기록을 기술하면서 이들을 영암군의 대표적인 역사 인물로 현양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주제어: 『조선환여승람-영암군편』, 이병연, 연주 현씨, 현준호, 열녀, 왕인, 도선

#### 차례

- |                      |                                    |
|----------------------|------------------------------------|
| 1. 머리말               | 3. 『조선환여승람-영암군편』에 그려진 영암 지역의 대표 인물 |
| 2. 『조선환여승람-영암군편』의 구성 | 4. 맺음말                             |

## 1. 머리말

이 논문은 근대 한국의 인문지리지 『조선환여승람-영암군편』의 사찬 읍지로서의 특성을 살피고, 영암군편의 대표적 인물이 표상화된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은 충남 공주 출신의 유학자 이병연(李秉延, 1894-1977)이 일제 시기 전국의 유림들과 협력하고 지역마다 보고원을 위촉하여 129개 군에 대한 인문지리서로 편찬한 책이다.<sup>1</sup> 이 책은 1929~1940년에 주로 출판되었고, 일부는 해방 이후에도 출판된 것으로 보인다. 이병연은 이 책의 내용이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구성과 체재를 계승하면서도 내용 면에서 근·현대적 성격을 띤다는 의미에서, 제목을 ‘환여승람(寰輿勝覽)’이라고 하였다. 환여(寰輿)란 “세계만물”이라는 뜻으로, 『조선

1 허경진·강혜중,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의 상업적 출판과 전통적 가치 계승 문제』, 『열상고전 연구』 35, 열상고전연구회, 237쪽.

『환여승람』은 한국의 역사와 지리를 토대로 문화와 유적, 인물들을 망라한 역사지리서라 할 수 있다. 책은 총설과 지리부·인물부로 세분화되어 지역의 고유 명칭, 위치, 경계 등과 군명의 유래와 지역의 명산, 사찰 등이 기록되어 있으며, 지역별 유명한 인물들이 대폭 확장·서술되어 있다.

『조선환여승람』은 그 체재와 구성 면에서 전통 시기 승람류(勝覽類)의 편찬의식을 표방하며 관찬서의 역사적 전통성을 계승하고자 하는 면모를 보이는 한편, 재지사족 등이 주도했던 사찬(私撰) 읍지의 성격이 종합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특징은 지역 유림들에게 매력적인 요소였다. 허경진·강혜중은 유림들이 전통 시기 관찬지리지의 명분을 잇는 『조선환여승람』을 자신들의 조상과 가문의 위상을 높이는 매체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이병연은 이 점을 이 책의 상업적 출판과 유통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하였다.<sup>2</sup> 또한 『조선환여승람』은 지역별로 개별적으로 편집 출판되었는데, 각 지역의 편찬자들은 전통 시기 관찬서의 편찬 명분을 살리면서 군의 정보 및 지역 유림들의 가문 및 조상들을 지리지에 수록함으로써 주요 구매층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하였다.<sup>3</sup>

『조선환여승람-영암군편』 인물편, 삼강오륜, 과환편에는 400여 명의 인물이 소개되어 있다. 필자는 『국역본 조선환여승람-영암군편』을 분석하면서 영암군의 특징적 인물을 포착하여 계보 및 행적을 드러내고, 현재적 의미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 논문을 집필하였다. 이 논문의 논의 순서 및 논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암군편』에 기술된 영암의 대표 세거 가문에는 밀양 박씨, 창녕 조씨, 광산 김씨, 전주 최씨, 함양 박씨, 거창 신씨, 창녕 조씨, 경주 이씨,

2 위의 논문, 237-239쪽.

3 같은 논문, 235-257쪽.

연주 현씨 등이 있다. 그런데 이중에서 연주 현씨 가문은 다른 어떤 가문보다 많이 소개되어 있다. 이 책에는 조선 태종 때의 현담윤에서부터 1920년대 현기봉·현용호까지 무려 40명의 연주 현씨가 인물들의 행적이 대대손손 기록되어 있다. 필자는 연주 현씨 인물들이 지역사회에서 언제 어떻게 정착하고, 삶을 이어가는지를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들의 행적에서 발견되는 덕행의 내용을 살피고, 연주 현씨 일문에 관한 기술의 비중이 왜 이리 높은지 고찰할 것이다.

둘째, 영암군을 대표하는 여성상으로 열녀 표상에 대해 주목하였다. 책의 ‘삼강오륜’편 효부·정렬 항목에는 28명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중 정렬 24명의 여성을 열녀의 삶과 죽음, 행적이라는 면에서 고찰할 것이다.

셋째, 영암군편의 편찬자는 백제인 왕인 박사와 통일신라 도선 국사의 행적에 관한 기록을 기술하면서 이들을 영암군의 대표적인 역사인물로 현양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그 중에서도 왕인의 영암 출생설은 『조선환여승람』에서 처음 발견되는 것으로, 이에 관한 기록의 근거와 현재적 의미에 관해 고찰할 것이다.

## 2. 『조선환여승람-영암군편』의 구성

전라남도 남서부에 위치한 영암군은 전통적으로 농업을 주 산업으로 하는 지역이다. 역사적으로 마한(馬韓)의 행정구역으로 시작되었으며, 660년 나당 연합군에 의해 멸망 당한 뒤에는 통일신라로 편입되었다.<sup>4</sup> 백제 때의

4 『조선환여승람』 「전라남도지리총설」에는 전라남도가 “옛날 변한(弁韓)의 땅인데, 뒤에 백

명칭은 월내군(月奈郡)인데, 신라 때에는 영암(靈巖)이라 고쳤으며, 고려 성종 14년(955년)에 낭주(朗州)로 고쳐 안동도호부를 두었다가, 현종 9년(1018년)에 다시 영암군으로 강등하여 조선조까지 이어졌다.<sup>5</sup> 영암군에서 역사적으로 제일 먼저 알려진 인물은 일본에 유학을 전한 백제인 왕인과 우리나라 풍수지리의 비조인 통일신라 도선(道詵)이다. 고려 말에는 왜구의 침입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으며, 조선시대 임진왜란 중에 의병 전몽성(全夢星) 등이 활약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자연환경으로는 영산강과 월출산이 유명하며, 최근에는 왕인박사유적지, 목포시와 영암군 삼호면을 잇는 영산강 하구 독이 관광명소로 등장하면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sup>6</sup> 현재 인구 5만 2천129명(2024년 기준)<sup>7</sup>이며, 점차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영암군의 유력 인사들이 이병연을 후원해 1937년 사찬 읍지 『조선환여승람-영암군편』을 간행한 것은 자신들이 사는 고장 및 가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영암군 영암문화원이 주도해 2007년에 근대인문지리서 『조선환여승람-영암군편』의 국역본을 간행한 것 또한 영암군의 21세기 현재의 시점에서, 영암군의 지역·문화적 위상을 드러내고 지역의 관광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의도와 연관된 것으로 파악된다.<sup>8</sup>

『영암군편』은 지지편(地誌編), 인물편(人物編), 삼강오륜편(三綱五倫編), 과학편(科宦編), 4부로 구성되어 있다. 지지편에는 산천, 군세, 토산, 명소, 형승,

---

제가 소유하게 되었다”(42쪽)고 하였는데, 이는 착오일 것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의하면, 변한은 기원전부터 기원후 4세기경까지 지금의 경상도 지역에 분포한 여러 정치집단 가운데 진한 연맹체에 속하지 않은 세력들을 통칭하는 지역이다.

5 『국역본 조선환여승람 영암군편』, ‘지지편’, 영암문화원, 2007, 52-53쪽.

6 이상은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및 다음백과사전 「영암군」 편을 참조해 기술한 내용이다.

7 2024년 3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8 『국역본 조선환여승람-영암군편』, 앞의 책.

고랑, 고적, 교궁, 정려, 명묘, 누정 등 22개의 항목에서 영암군의 유명한 산에 관련된 선조들의 시를 대거 인용해 소개하고 있다. 특히 영암은 월출산을 비롯해 수려한 산과 계곡이 많고 풍경이 아름다워 정자가 적지 않은데, 이에 관련된 시를 다수 소개하였다.

인물편은 제영, 학행, 유일, 유행, 문행, 훈신, 원종훈, 공신, 명신, 명환, 명관, 청백리, 문장, 문원, 선문, 전시, 필원, 선필, 행의, 명망, 선행, 진목 등 2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9명의 인물이 소개되었다. 삼강오륜편은 충신, 절의, 효자, 효부, 정렬, 5개 항목에 111명이, 과환편에서는 문과, 사마, 무과, 음사, 수직, 증직, 명석, 7개 항목에서 104명이 소개되었다. 인물편·삼강오륜편·과환편에 소개된 인물은 중복된 인원을 포함해 414명에 달한다.

현재 영암 군민들이 근대 사찬읍지 『조선환여승람-영암군편』을 주목하고 번역 출판한 가장 큰 이유는 지역의 역사와 자연, 가문과 문화를 다시 드러내며, 지역 관광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 3. 『조선환여승람-영암군편』에 그려진 영암 지역의 대표 인물

#### 3.1. 영암 세가(世家)로 표상화된 연주(延州) 현씨(玄氏) 일문

『조선환여승람-영암군편』에 등장하는 영암 세가(世居) 대표 성씨에는 거창(居昌) 신씨(辛氏), 전주(全州) 최씨(崔氏), 탐진(耽津) 최씨(崔氏), 창녕(昌寧) 조씨(曹氏), 경주(慶州) 이씨(李氏), 함양(咸陽) 박씨(朴氏), 연주(延州) 현씨(玄氏) 등이 있다. 영암 지역에는 16세기 중엽 이래로 남평 문씨, 거창 신씨, 전주 최씨, 천안 전씨, 경주 이씨, 밀양 박씨, 김해 김씨, 연주 현씨 등 대표 사족

들이 영암 향교를 중심으로 1674년(현종 15)에 작성된 영암 향약의 주체로 활동하였다.

『조선환여승람-영암군편』에 기술된 영암 세거 가문들 중 단연 눈에 띄는 가문은 연주 현씨 일문이다. 연주 현씨는 지지편, 인물편, 삼강오륜, 과환편에 걸쳐 골고루 발견되며, 서술된 분량도 다른 어떤 문중들보다 많다. 『영암군편』에는 연주 현씨의 시조 현담윤, 그리고 7대 현옥량부터 26대 현용호에 이르기까지 20대에 걸쳐 40명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 이를 시대 순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조선환여승람-영암군편』에 기록된 연주 현씨 명단

|                                                                                                                                                                                                                                                                            |
|----------------------------------------------------------------------------------------------------------------------------------------------------------------------------------------------------------------------------------------------------------------------------|
| 시조 현담윤 - 7대 현옥량 - 8대 현용무 - 9대 현규 - 10대 현득리(전주판관공파 분파) - 11대 현분 - 12대 현윤명 - 13대 현구 - 14대 현덕형 - 15대 현건 - 16대 현유후·유준 - 17대 현징 - 18대 현약호 - 19대 현수중 - 20대 현명직·명덕 - 21대 현진택·진한 - 22대 현부행·부해·부철·부원 - 23대 현상요·상순·상직·상학·상설·상봉·상영 - 24대 현계묵·인묵·주묵·지묵·열묵 - 25대 현재승·기동·기봉·기은 - 26대 현용호 |
|----------------------------------------------------------------------------------------------------------------------------------------------------------------------------------------------------------------------------------------------------------------------------|

연주 현씨는 조선시대 영암에 들어온 세거 사족으로, 조선 전기 영암군 군서면 구림리로 입향한 현윤명(玄允明) 및 그 후손들이 향촌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며 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위 표에는 시조 현담윤이 기술되어 있고, 7대 현옥량부터 26대 현용호까지는 각 대의 인물이 빠짐없이 기술되어 있다. 심지어 20대부터는 한 대에 2~7명까지 기록되기도 하였다. 다른 가문에서는 이 정도로 많은 인물이 기술된 사례가 없는 것을 생각하면, 확실히 연주 현씨 가문 인물들이 대거 기록된 것은 특이한 사례임을 알 수 있다.

위 인물들 중에서 현윤명의 증손 현건(玄健)은 구림(鳩林)에서 동족 기반을

다지는 데 노력하였으며, 구림 대동계 증수에 참여하고 회사정(會社亭) 건립을 주도했다. 현건의 손자 현징(玄徵)은 1660년(현종1)에 사마시에 급제하여 참봉까지 지내고 고향으로 돌아와 죽림정(竹林亭)을 짓고 선비들을 가르쳤다. ‘지지편’에 기록된 연주 현씨와 관련된 고적, 묘, 누정 등은 <표 2>와 같다.

〈표 2〉 ‘지지편’의 연주 현씨 행적

| 분류         |       | 이름       | 활동내용                                                                                                     |
|------------|-------|----------|----------------------------------------------------------------------------------------------------------|
| 地誌編<br>(8) | 古蹟    | 향약(鄉約)   | 1634년 이후백, 백광훈, 현건(15대) 등이 남전 여씨 향약을 본받아 명첩을 만들                                                          |
|            | 名墓(3) | 현징(玄徵)   | 17대. 묘는 덕진면 금강리 구입석리 신좌의 언덕에 있음. 현씨 일가의 내력과 현징의 생애가 소상히 기술됨. 진사합격, 문과실패, 광릉참봉 제수와 사직, 공의 효제와 충의, 풍류가 기록됨 |
|            |       | 현명직(玄命直) | 20대. 묘는 학산면 용산리 안골 부춘산 간좌에 있음. 효성과 우애, 학문에 대해 기록됨                                                        |
|            | 樓亭(4) | 회사정(會社亭) | 군서면 구림리에 있으며, 현건, 조행립, 박성오 등이 향약을 세워 매년 춘추 겹날에 회합하는 곳임                                                   |
|            |       | 죽림정(竹林亭) | 현징(17대)이 지었음                                                                                             |
|            |       | 삼벽당(三碧堂) | 군서면 구림리에 있고, 현약호(18대)가 건립하고 소나무와 대나무를 심고 이름을 삼벽이라 하고, 우암 송시열이 題額하였음                                      |
|            |       | 호연재(浩然齋) | 덕진면 금강리 구입석 지내동에 있으며, 참봉 현징의慕齋閣임                                                                         |

영암에서 연주 현씨와 연관된 최초의 흔적은 1634년 현건 등이 남전 여씨의 향약을 본받아 명첩을 만들었다는 향약에 관한 기록이다. 해당 항목에는 청련(靑蓮) 이후백(李後白), 옥봉(玉峯) 백광훈(白光勳), 현건(玄健), 첨추(僉樞) 조행립(曹行立), 목사(牧舍) 임구령(林九齡), 감사(監司) 신희남(愼喜男) 등이 함께



결성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 향약은 회사정(會社亭)에서 매년 춘추계 날에 모여 강신(講信)하였다고 한다.<sup>9</sup> 그런데, 여기 기록된 인물들의 선후관계에는 착오가 보인다. 이후백(1520~1578), 백광훈(1537~1582), 신희남(1517~1591)은 현건(1572~1656)과 나이 차가 많고, 1634년은 위 세 사람이 이미 세상을 뜬 뒤의 일이라 기록내용이 정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중 현건과 연배가 맞는 사람은 조행립(1580~1663) 정도이다. 이는 착오이거나, 아니면 이전에 이후백, 백광훈 등이 이미 동계를 만들었는데, 현건 등이 뒤에 동계를 준수하면서 기록이 뒤섞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다른 기록에, 회사정이 “구림 대동계의 집회소로 박성오·조행립·현건 등에 의해 1646년부터 8년여에 걸쳐 완공되었다.”고 기술된 것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sup>10</sup> 명묘(名墓)로는 현징과 현명직의 묘가 기록되었고, 누정으로는 회사정을 비롯해 현징, 현약호 등이 건립한 죽림정, 삼벽당, 호연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연주 현씨 중 벼슬을 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조선환여승람 영암군편』 ‘과환편’에 오른 연주 현씨 인물은 <표 3>과 같다.

<표 3> ‘과환편’의 연주 현씨 인물 행적

| 분류         |       | 이름       | 관계      | 활동내용                                                                                   |
|------------|-------|----------|---------|----------------------------------------------------------------------------------------|
| 科宦編<br>(8) | 文科(3) | 현옥량(玄玉亮) |         | 7대. 태조조에 문과에 등과하여 예조판서에 이름                                                             |
|            |       | 현규(玄圭)   | 현옥량의 손자 | 9대. 자는圭玉. 세종조에 문과에 등과, 교리에서 이조정랑에 승계함. 옥당에 현규가 올린 교서나 유문(遺文)이 칭송받았으며, 학식이 고명함. 이조참의 추증 |

9 『국역본 조선환여승람 영암군편』, ‘지지편’, 71-72쪽.

10 『구림(鳩林)』, 사단법인 향토문화진흥원, 1992, 144쪽.

|       |          |         |                                                                                                                                       |
|-------|----------|---------|---------------------------------------------------------------------------------------------------------------------------------------|
| 蔭仕(5) | 현득리(玄得利) | 현규의 아들  | 10대. 세조조에 문과 등과하여 대사성을 역임하고 이조참의에 오름                                                                                                  |
|       | 현용무(玄用武) | 현옥량의 아들 | 8대. 태종조에 은둔하며 영달을 꿈음                                                                                                                  |
|       | 현분(玄賁)   | 현득리의 아들 | 11대. 성종조에 사헌부 감찰, 송화현감 지냄                                                                                                             |
|       | 현윤명(玄允明) | 현분의 아들  | 12대. 명종조에 영광군수와 부사직 역임. 광성부원군 이극감의 외손이며, 감사 난포 박지번의 외척임. 천안에서 영암으로 내려와 살았음. 문정공 윤두수와 문정공 윤근수, 충렬공 이변, 이책, 충장공 이수, 문강공 안방준 등이 다 그의 외손임 |
|       | 현구(玄球)   | 현윤명의 아들 | 13대. 선조조 중립찰방, 태인현감 역임                                                                                                                |
|       | 현덕형(玄德亨) | 현구의 아들  | 14대. 선조조 종사랑 역임                                                                                                                       |

『영암군편』 ‘과환편’에 기록된 현씨 가문의 문과급제자는 7대 현옥량(태조조 이조판서), 9대 현규(세종조 교리와 이조정랑), 10대 현득리(세조조 대사성, 이조참의), 세 명이다. 음사로 벼슬을 한 이는 총 다섯 명으로, 11대 현분(성종조 사헌부 감찰, 송화현감), 12대 현윤명(명종조 영광군수, 부사), 13대 현구(선조조 중립찰방, 태인현감), 14대 현덕형(선조조 종사랑) 등이 있다. 그 외에, 사마(司馬)로서 16대 현유후(인조조 생원), 17대 현징(참봉), 18대 현약호(숙종조 생원), 20대 현명덕(영조조 진사), 25대 현기봉(고종조 생원) 등 5명의 이름이 발견된다. 무과 급제자는 없다. 이렇듯 연주 현씨 일문에서 벼슬을 한 이는 조선 전기의 인물 8명이 전부일 정도로 적다. 이에 비해, ‘인물편’과 ‘삼강오륜편’에는 충신, 효행, 독서, 성리학 방면으로 36명의 이름과 그 행적이 기술되어 있다.

〈표 4〉 '인물편'과 '삼강오륜편'의 연주 현씨 인물 행적

| 분류          |            | 이름           | 관계         | 활동내용                                                                                                      |
|-------------|------------|--------------|------------|-----------------------------------------------------------------------------------------------------------|
| 人物編<br>(31) | 遺逸<br>(8)  | 현건<br>(玄健)   | 현구의<br>손자  | 15대. 자는 汝強, 호는 在潤齋. 학문이 깊고 박식해 선조조에 監役을 제수하여 主簿에 다섯 번이나 불렸으나 나아가지 않음. 충무공 이순신과 절친해, 기밀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의논하였음. |
|             |            | 현유후<br>(玄裕後) | 현건의<br>아들  | 16대. 자는 次慶, 호는 就陰亭. 인조 때 생원을 하고 참봉을 제수했으나 나아가지 아니함.                                                       |
|             |            | 현징<br>(玄徵)   | 현건의<br>손자  | 17대. 자는 士休, 호는 中林亭, 감역 건의 손자. 현종 대 진사에서 참봉에 천배되었으나 버리고 돌아옴.                                               |
|             |            | 현약호<br>(玄若昊) | 현징의<br>아들  | 18대. 자는 欽甫, 호는 三碧堂. 우암 송시열의 문인. 숙종조에 생원이었으나, 사회를 비판하고 벼슬을 물러남. 뜻이 높고 지조가 있어 영조조에 사허부 지평을 증함.              |
|             |            | 현수중<br>(玄守中) | 현약호의<br>아들 | 19대. 자는 信仲, 호는 不能窩. 농암의 문인으로 의지가 강하고 청렴함. 영조 때 이진명이 사신으로 갈 때 백의로 종사함.                                     |
|             |            | 현명직<br>(玄命直) | 현약호의<br>손자 | 20대. 자는 子敬, 호는 尋初齋. 이도임의 문인으로 박식하고 덕행이 높았음. 미호 김원행, 옥곡 이봉상, 겸산 유숙기와 종유함.                                  |
|             |            | 현진택<br>(玄鎭澤) | 현명직의<br>아들 | 21대. 자는 東燮, 호는 大小軒. 미호 김원행의 문인으로 청빈하고 학문이 정도를 하여 스승의 유지를 잘 받들.                                            |
|             |            | 현부행<br>(玄溥行) | 현진택의<br>아들 | 22대. 자는 道源, 호는 此君軒. 송성담의 문인으로 덕과 학문이 높았음.                                                                 |
|             | 儒行<br>(12) | 현진한<br>(玄鎭漢) | 현명직의<br>아들 | 21대. 자는 東美, 호는 悠仁齋. 근엄하고 효우가 돈독하며, 산천에 사는 것을 즐겁게 여겼음.                                                     |
|             |            | 현부해<br>(玄溥海) | 현진한의<br>조카 | 22대. 자는 灝源, 호는 誠敬齋. 행동을 바르게 하여 세상에 모범이 됨. 伯兄 부행과 우애가                                                      |

|  |           |              |            |                                                                     |
|--|-----------|--------------|------------|---------------------------------------------------------------------|
|  |           |              |            | 돈독하고 같이 수학함.                                                        |
|  |           | 현부철<br>(玄溥澈) | 현부해의<br>아우 | 22대. 자는 學源, 호는 遂窩. 문학과 덕행이 뛰어남.                                     |
|  |           | 현부원<br>(玄溥遠) | 현부철의<br>아우 | 22대. 자는 大源, 호는 眞齋. 효우와 지식이 많았음.                                     |
|  |           | 현상요<br>(玄相堯) | 현부행의<br>아들 | 23대. 자는 聖弼, 호는 尋源齋. 순박하고 선조의 유지를 잘 받들었음.                            |
|  |           | 현상순<br>(玄相舜) | 현상요의<br>아우 | 23대. 자는 聖佑, 호는 望北軒. 효도와 우애가 뛰어나고, 언행을 바르게 하였음.                      |
|  |           | 현상직<br>(玄相稷) | 현부해의<br>아들 | 23대. 자는 聖益, 호는 自怡堂. 효도와 우애를 근본으로 형제가 늙도록 돈독하여 향리에서 흠복함.             |
|  |           | 현상익<br>(玄相翊) | 현부철의<br>아들 | 23대. 자는 聖泰, 호는 己千堂. 학문을 일찍이 성취하여 경학이 깊었음.                           |
|  |           | 현상영<br>(玄相英) | 현부원의<br>아들 | 23대. 자는 聖華, 호는 三樂窩. 천성이 바르고 엄정하며 덕행이 뛰어나 향리에서 자랑하였음.                |
|  |           | 현계묵<br>(玄啓默) | 현상요의<br>아들 | 24대. 자는 沃汝, 호는 克復齋. 준엄하고 규범대로 행동하며 진실하였음. 송근수, 이성렬과 중유함. 유고가 있음.    |
|  |           | 현주묵<br>(玄周默) | 현상직의<br>아들 | 24대. 자는 涵一, 호는 月溪. 자질이 도인에 가깝고 효도와 우애, 문장으로 소문남. 유고가 있음.            |
|  |           | 현재승<br>(玄在升) | 현계묵의<br>아들 | 25대. 자는 四明, 호는 存齋. 송연재의 문인으로, 천재의 자질이 있으며, 윤용구, 최영조 등과 중유함, 유고가 있음. |
|  | 文行<br>(3) | 현상학<br>(玄相鶴) | 현상직의<br>아우 | 23대. 자는 聖天, 호는 自樂園. 문학에 능하고 효우가 지극함.                                |
|  |           | 현상봉<br>(玄相鳳) | 현상익의<br>아우 | 23대. 자는 聖儀, 호는 竹下. 가문의 전통을 준수하고 학문에 열중하며 행동이 의로움.                   |
|  |           | 현용호<br>(玄龍鎬) | 현기동의<br>아들 | 26대. 자는 子行, 호는 鶴齋. 송연재의 문인으로, 성품이 엄하고 선대의 유훈을 지극히 섬                 |

|                 |           |              |                         |                                                                                   |
|-----------------|-----------|--------------|-------------------------|-----------------------------------------------------------------------------------|
|                 |           |              |                         | 기며, 효우와 문장이 모범이 됨.                                                                |
|                 | 原從勳       | 현득리<br>(玄得利) | 현규의<br>아들               | 10대. 자는 見龍. 세조조에 문과 등과, 이조참의. 전주판관 퇴임. 이시애의 난에 순절. 이조판서 추증.                       |
|                 | 名臣        | 현옥량<br>(玄玉亮) | 현담윤의<br>後               | 7대. 자는 采相, 호는 沙月. 태조조에 문과 등과, 예조판서. 귀향 후 후진양성. 학문이 출중함.                           |
|                 | 名宦        | 현득리<br>(玄得利) | 현규의<br>아들               | 10대. 세조조에 문과 등과, 대사성. 이조참의를 하고 전주판관으로 퇴임하였다가 이시애의 난에 순절. 예조판서, 이조판서, 대제학 추증.      |
|                 | 筆苑        | 현구<br>(玄球)   | 현윤명의<br>아들              | 13대. 자는 鳴紱. 선조조에 현감을 하고 필법이 뛰어나고, 호탕하며 인품이 뛰어나. 고향에 돌아와 西湖에 배를 띄워 소요하니 서호주인이라 칭함. |
|                 | 善筆        | 현열묵<br>(玄烈默) | 현상봉의<br>아들              | 24대. 자는 英淑, 호는 鷄畬. 근면검소, 가정이 빈곤하여 돌을 연마하여 십여 개를 닳도록 학문에 전념하여 문장으로 이름난.            |
|                 | 行誼<br>(3) | 현인묵<br>(玄麟默) | 현상직의<br>아들              | 24대. 자는 仁瑞, 호는 茶圃. 성격이 단호하고 효우가 독실하며, 가풍을 엄중히 세움.                                 |
|                 |           | 현기동<br>(玄基東) | 현인묵의<br>아들              | 25대. 자는 正氣, 호는 松隱. 준엄한 성격에 가정을 규점으로 다스리고, 사람을 진실로 상대함.                            |
|                 |           | 현기봉<br>(玄基奉) | 현인묵<br>아들·<br>현기동<br>아우 | 25대. 자는 致道고, 호는 鶴坡. 고종조에 생원. 효우 돈독하고 귀천을 가리지 않고 사귀.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흥년에 수백 가구를 구휼함.  |
| 三綱<br>五倫<br>(5) | 忠臣        | 현득리<br>(玄得利) | 현규의<br>아들               | 10대. 세조 때 문과 등과. 이조참의, 이시애의 난 때 순절. 출전할 때 손가락을 베어 부인 권씨에게 맡긴 일화 소개. 권씨도 從殉함.      |
|                 | 孝子<br>(4) | 현상설<br>(玄相尙) | 현상직의<br>아우              | 23대. 자는 聖韻, 호는 龔若堂. 효성 지극. 부모상에 3년 시묘살이.                                          |

|  |  |              |            |                                                                       |
|--|--|--------------|------------|-----------------------------------------------------------------------|
|  |  | 현지목<br>(玄知默) | 현상설의<br>아들 | 24대. 자는 德善, 호는 炊累齋. 가난했으나 효성이 지극하였고, 斷指 居喪함.                          |
|  |  | 현주목<br>(玄周默) | 현상직의<br>아들 | 24대. 효성 지극, 부모님이 위독할 때 斷指하고 3년간 시묘를 함.                                |
|  |  | 현기은<br>(玄基殷) | 현지목의<br>아들 | 25대. 자는 栢苑, 호는 鶴山. 가난했으나 정성으로 봉양하고, 모친의 병환에 자신의 허벅지살을 구워드려 3년 이상 연명함. |

〈표 4〉에는 36명 인물의 행적이 주로 서술되어 있다. 이 수는 『영암군편』에 기술된 400여 명 중 1/10에 가까운 수치로, 위 ‘인물편’과 ‘삼강오륜편’에 기록된 36명은 대개 충신, 효행, 독서, 성리학 방면에서 비범한 인물로 평가 받았다. 적어도 이 기록을 통해서만 보면, 연주 현씨는 영암 지역에서 대대로 명망 높은 세가(世家)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선조대 종사랑을 했던 14세손 현덕형 이후로 아무도 관직에 오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환여승람』에 연주 현씨 일문의 이름이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는 두 가지로 추정할 수 있다.

첫째, 『조선환여승람』의 기록대로, 이들이 실제로 충효, 독서, 학문, 문인들과의 증유(從遊), 구휼활동 등으로 신망을 얻고, 행실이 돈독한 재지사족으로 인정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조선환여승람』이 상업적 출판물임을 고려할 때, 『영암군편』의 편찬과정에서 출판경비를 후원하면서 현씨 가문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을 대거 올리고 그 행적을 미화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필자는 이 두 가지 중에서 후자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다. 사실을 추적해보면, 1930년대 호남지방의 대표적인 경제인 현준호(玄俊鎬)가 영암군편의 편찬과정에서 조상을 현양하기 위해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20세기 초 호남거부로 통하던 26세손 현준호가 편자 이병연과 함께 『영암군편』 발문(跋文)을 쓴 것에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표 4〉에

기술된 덕행 내용은 대부분 삼강오륜에 입각한 것이며, 그 실제적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다. 위의 항목들은 증거가 없어도 기술할 수 있는 사적인 내용이다. 다른 지리지에서는 연주 현씨에 대한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도 유력한 추정 근거이다.

『영암군편』에서는 연주 현씨의 재산 관련기록을 찾아볼 수 없지만, 이들이 오랫동안 영암군에서 재지사족으로 행세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로는 그들이 토지와 노비 등 적지 않은 재산을 소유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는 25세손 현기봉(玄基奉, 1855~1924)이 “흥년에는 창고 문을 열어 수백 가구를 구휼하여 도청 관리의 보고로 조정에게까지 알게 되었다.”(171쪽)는 내용에서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다. 흥미롭게도 영암군에서 효행과 성리학, 학문과 독서 등으로 평판을 받아 온 연주 현씨 가문은 19세기 말-20세기 전반, 현기봉과 현준호를 중심으로 호남지방의 대지주 및 거부로 두각을 나타내며 식민지 조선의 경제활동을 이끌었다. 현준호는 이러한 경제적 기반을 바탕으로 『환여승람』의 출판비용을 대면서, 『영암군편』에 자신의 가문 인물들을 대거 올려 가문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을 기울였으리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 점은 사찬 읍지로서의 『환여승람』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일면일 것이다.

### 3.2. 영암 열녀의 삶과 죽음

『조선환여승람-영암군편』 ‘삼강오륜’ 편에는 정렬 24명 여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의 명단과 행적은 다음과 같다.

〈표 5〉 영암군의 정렬 여성

| 정렬 여인    | 가문             | 정렬유형 | 정렬내용                                     | 결과          |
|----------|----------------|------|------------------------------------------|-------------|
| 최씨       | 호장<br>정만의 처    | 생존형  |                                          | 정려          |
| 김씨       | 조안정의<br>처      | 생존형  | 17~19세에 부모, 남편 사망, 모두 3년<br>간 여묘(廬墓)     | 정려          |
| 함양<br>박씨 | 하동 정씨<br>석렬의 처 | 생존형  | 남편 지극 간병                                 | 비에 정렬<br>새김 |
| 광산<br>김씨 | 거창 신씨<br>재순의 처 | 생존형  | 남편 22세 사망, 3년상 치르고 자식을<br>의롭게 가르치고 가계 계승 | 이웃친척<br>함복  |
| 김해<br>김씨 | 밀양 박씨<br>병연의 처 | 생존형  | 효도, 남편 간병, 자식 가르쳐 전수                     | 정려 추천       |
| 전의<br>이씨 | 함평 이씨<br>민홍의 처 | 생존형  | 효경 읽어 규문화목, 남편 간병, 시부<br>봉양 및 3년상        | 향리 흠송       |
| 전주<br>최씨 | 거창 신씨<br>갑성의 처 | 생존형  | 남편 간병, 3년상, 시부모 공양, 조가<br>를 입양해 가문 번창    | 정려 추천       |
| 선산<br>임씨 | 포산 곽씨<br>성호의 처 | 생존형  | 남편과 시부모 3년상, 어린 자식 교육,<br>가문번창           | 포상 추천       |
| 김씨       | 윤유성의<br>처      | 사망형  | 남편 죽자 자결                                 | 정려          |
| 이씨       | 최상두의<br>처      | 사망형  | 남편 죽자 목을 맴                               | 정려          |
| 이씨       | 안세웅의<br>처      | 사망형  | 결혼 6개월 만에 남편 죽자 목을 맴                     | 정려          |
| 유소사      | 임자근의<br>후처     | 사망형  | 남편 죽고 염을 마치고 자결                          | 정려          |
| 이씨       | 오석천의<br>처      | 사망형  | 남편 죽고 물에 몸을 던짐                           | 정려          |
| 허씨       | 조도명의<br>처      | 사망형  | 남편 죽고 7일간 음식 끓고 죽음                       |             |
| 진위<br>이씨 | 김수연의<br>처      | 사망형  | 남편이 단종의 변에 절식해 죽자 따라<br>죽음               |             |



|          |                |     |                                                                |           |
|----------|----------------|-----|----------------------------------------------------------------|-----------|
| 천안<br>전씨 | 성산 현씨<br>득리의 처 | 사망형 | 남편이 이시애의 난에 죽자 따라 죽음                                           | 증<br>정경부인 |
| 나주<br>정씨 | 광산 김씨<br>대성의 처 | 사망형 | 남편 죽자 홍문동으로 들어가 은거,<br>가문 이은 뒤 자결                              |           |
| 광산<br>김씨 | 창녕 조씨<br>연호의 처 | 사망형 | 남편이 정유재란 남원전투에서 전사하<br>자 아이 15세가 된 후 남편을 초혼 제<br>사한 후 묘 곁에서 죽음 | 정려        |
| 김해<br>김씨 | 이천 서씨<br>경택의 처 | 사망형 | 남편 간병, 20세에 사망하자 장사 마<br>치고 자결                                 |           |
| 함평<br>이씨 | 금성 정씨<br>몽렬의 처 | 사망형 | 남편 4년 간병. 장례 후 자결                                              | 정려        |
| 해주<br>오씨 | 밀양 김씨<br>의환의 처 | 사망형 | 남편 위독하자 단지수혈, 남편 죽자<br>탈복 후 종순                                 | 포상 추천     |
| 광산<br>이씨 | 함평 이씨<br>유혁의 처 | 사망형 | 남편 죽자 3년상 마치고 자결                                               | 정려 추천     |
| 전주<br>최씨 | 문화 류씨<br>인진의 처 | 사망형 | 시부모 상, 남편간병에 뜻을 맞보고,<br>죽은 후 여묘, 양자를 세워 가문 잇고,<br>남편 제사상 자결    | 행장 지음     |
| 영산<br>신씨 | 남평 문씨<br>집흥의 처 | 사망형 | 남편 병들자 죽음 자처, 남편이 죽자<br>장사를 멈추게 하고 따라 죽음                       | 포상 추천     |

『영암군편』에 기록된 24명 여성의 정렬 행위는 남편사망 뒤 행동에 따라 생존형(8명), 사망형(16명)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 유형인 ‘생존형’은 남편이 사망한 뒤 부인이 살아서 가족봉양 및 자녀교육 등의 행위를 하는 유형이다. 정렬 부인 8명은 남편의 상을 치른 뒤에 남편을 따라 죽으려 했으나 어린 자녀가 있거나 노부모가 있어 차마 그리 못하고 수절하며 자녀를 가르쳐 가문을 잇는 등의 행실로 칭송을 받았다. 8명 중에서 두 명이 정려를 받았고, 세 명은 정려와 포상을 추천 받았으며, 한 명은 남편의 비석에 정렬을 새겼으며, 한 명은 향리에서 그 정렬의 행위를 칭송하였다고 했다. 이중

광산 김씨와 전주 최씨의 행적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① 김씨는 광산 김씨 필렬의 딸이며, 거창 신씨 재순의 아내다. 조용하고 정숙하여 정성껏 시부모를 섬기고 남편을 공대하였으며, 나이 스물둘에 남편이 죽자 따라 죽으려 하다 갓난 어린 애와 집안에 제사를 맡길 곳이 없으므로 죽지 못하고, 장사를 예를 갖추어 슬퍼하며 삼년상을 마치고 자식을 의롭게 가르쳐 가계를 계승케 하여 이웃과 친척들이 흠복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sup>11</sup>

② 최씨는 전주 최씨로 연촌 최덕지의 손녀이요 거창인 신기의 후 감성의 처이다. 신행(新行) 전에 남편이 병에 걸렸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와 백병으로 간호하였으며, 자신이 대신 해주기를 하늘에 빌었으나 남편이 죽자 슬픔으로 삼년상을 마쳤다. 시부모를 잘 봉양하였으며, 조카 사범이를 입양하여 가문을 번창케 하니 고을과 도에서 함께 천(薦)하였다.<sup>12</sup>

①에서 광산 김씨 부인은 스물 둘에 남편이 죽자 따라 죽으려다 어린 아 이와 집안제사 때문에 그러지 못했다. 3년상을 치르고 자식을 가르쳐 가문을 이어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②에서 전주 최씨 부인은 혼례를 치르기도 전에 병에 걸린 남편을 백병으로 간호하였고, 자신이 대신 죽기를 하늘에 빌었으며, 남편이 죽은 후 3년상을 치른 뒤 조카를 입양하여 가문을 이었으므로, 고을과 도에서 조정에 정려를 청하였다.

두 번째 유형인 ‘사망형’은 남편이 사망한 뒤 부인도 죽음을 택함으로써 사랑 및 절의를 표하는 형태이다. 24명 중 16명이 남편이 죽은 후 따라 죽

11 『국역본 조선환여승람 영암군편』, 208쪽.

12 위의 책, 210쪽.

는 선택을 하였다. 이중 7명은 정려를 받았고, 1명은 정경부인으로 추증되었다. 세 명은 정려와 포상을 추천 받았으며, 한 명에게는 행장이 지어졌다. 이중 몇 명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③ 광산 김씨는 현감 현추의 딸이요 충신편 창녕 조씨 언호의 처이다. 선조 정유재란에 징병되어 남원전투에 싸우러 가면서 “내가 살아서 오지 않으면 배안의 애가 남자이면 성장하여 혼을 불러 장사하라.”는 말을 하고 떠났다. 부인은 얼마 안 되어 남편이 순절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부인은 아이가 15세 되던 해에 남편이 순절한 땅에 가서 초혼(招魂)하여 장사를 지내고 삼일 후 목욕하고 사당에 들어가 분향을 한 뒤, 아들에게 “이제는 내 할 일을 다하였다.” 하며 묘 곁에서 죽었다 하여 정려를 명하였다.<sup>13</sup>

④ 함풍 이씨는 익지의 딸로 금성 정씨 몽렬의 처이다. 남편이 위독한 병으로 4년을 누워 백방으로 간호하였으나 죽으니, 물과 음식을 먹지 않고 장사를 마친 후 자결하였다 하여 정려를 명하였다.<sup>14</sup>

⑤ 영산 신씨는 남평 문씨 집흥의 처이다. 남편이 병들자 자기 몸을 대신하여 줄 것을 하늘에 빌었으나 남편이 죽자 부부가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남편의 장사를 멈추게 하고 자신도 따라 죽었다. 이에 감복하여 사림에서 포상을 천하였다.<sup>15</sup>

③에서 광산 김씨 부인은 정유재란 때 남원전투에서 남편이 순절하자 남

13 같은 책, 206-207쪽.

14 같은 책, 207쪽.

15 같은 책, 210쪽.

편의 유언대로 아이가 15세 되던 해 전쟁터에 가 초혼하여 장사 지낸 뒤, 3일 뒤 남편의 묘 곁에서 죽었다. 죽은 남편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슬픔이 없었다면, 남편이 죽은 지 15년 뒤에 죽음을 선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④에서 함풍 이씨 부인은 4년간 간병한 남편이 죽자, 음식을 끊고 장사를 마친 뒤 자결하였다. ⑤에서 영산 신씨 부인은 남편이 병사하자 같이 죽어 묻혀야 한다며, 남편의 장례 도중에 죽었다고 했다.

이들 사대부가 부녀들의 죽음에서 우리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극진한 사랑을 느낄 수 있지만, 한편으로 남성 중심적 윤리, 나아가 사랑과 윤리를 넘어, 죽음에 대해 종교적 수준의 세뇌가 작동하였다고 감지되는 지점이 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다고 해서 아내를 따라 죽었다는 사대부가의 남자의 미담은 일찍이 전해지지 않는다. 남편의 죽음을 당한 16명의 여성들은 부녀의 마땅한 윤리를 실현하기 위해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가족친척과 향리 사람들은 그러한 죽음을 찬미하며 조정에 정려를 추천하였다. 일찍이 1793년 안의현감을 하였던 연암 박지원은 「열녀함양박씨전(烈女咸陽朴氏傳)」을 지어 사대부가의 여인들은 물론, 중인과 평민가의 과부들조차 남편을 따라 죽음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그녀들은 마치) 불과 물에 몸을 던지거나 독주를 마시며 끈으로 목을 졸라매면서도 마치 극락이라도 밟는 것처럼 여긴다. 그들이 열렬하기는 하지만 어찌 너무 지나치다고 하지 않겠는가?”<sup>16</sup>라며 한탄한 바 있다. 박지원이 한탄한 열녀들의 종순(從殉)은 영암군의 사대부가에서도 동일한 양상으로 일어났다. 식민지 하 현실이자 근대화를 추구하는 1930년대의 시점에서도 향촌 양반사회에서는 여전히 유교적 열녀를 관습적으로 추구하고 있던 양상을 『조선환여승람-영암군편』에서 확인할 수 있다.

16 燕巖集 卷之一. “水火鳩纒 如蹈樂地, 烈則烈矣 豈非過歟.”

### 3.3. 백제인 왕인 박사와 신라인 도선국사의 현양

『조선환여승람-영암군편』에는 백제와 통일신라 인물에 관한 기록이 많지 않은데, 그 중 눈에 띄는 것은 백제인 왕인 박사와 통일신라 도선 국사의 행적에 관한 기록이다. 편찬자는 이 두 인물을 영암군의 대표적인 역사 인물로 현양하려는 의도를 드러낸다.

#### 1) 백제인 왕인 박사

일본에 논어와 천자문을 전했다는 백제인 왕인(王仁)에 대한 기사는 일본 문헌 『古事記』, 『日本書紀』, 『續日本記』에 나온다. 이 기사를 바탕으로 현재 왕인은 한일 양국에서 일본에 선진문물을 전수한 백제인으로 평가 받고 있다. 왕인(王仁)은 『영암군편』 명환(名宦) 편에 한 번 기록되어 있다. 해당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백제 古爾王 때 (왕인) 박사관은 오묘한 뜻에 정통하고, (고이왕) 52년에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 (이 때에) 冶工 및 釀造 기술자 및 吳服師 등을 데리고 갔으며, 應神天皇에게 千字文과 論語를 바치고 전수하였다. (일본의) 경전과 유학과 기타 제도가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왕인의) 묘는 일본 大阪府 北河內郡 枚方に 있는데, 그 아래에 사당이 건립되어 있다.<sup>17</sup>

위 내용에 의하면, 왕인은 백제의 제8대 왕인 古爾王 52년인 285년에 일본에 사신으로 파견되어 應神天皇에게 경전과 유학 등을 전했다. 왕인에 관

17 “百濟古爾王時 博士官精通奧意 五十二年使日本 冶工及釀造人吳服師等率往 傳習進千字文論語於應神天皇 經傳儒學其他制度始此 墓在日本大阪府北河內郡枚方 其下建祠。” 朝鮮實輿勝覽 「靈巖郡」 ‘名宦 王仁’.

한 기록은 그간 한국 고기록에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일본 고문헌인 『古事記』(712년 저술)에 가장 먼저 나온다. 그 후의 기록인 『日本書紀』, 또는 『續日本記』 등에는 왕인에 관한 기록이 자주 나타난다. 『古事記』(中卷 應神條)에 의하면, “백제국왕 照古王(近肖古王)이 阿知吉師(아지기시)란 사람을 시켜 수말과 암말 각 한 필씩, 칼과 거울을 보내왔다”고 하였으며, “일본의 왕은 백제국에 현인이 있으면 보내 달라고 청하였다. 백제에서는 和邇吉師(와니기시)란 사람으로 하여금 『論語』 10권, 『千字文』 1권, 모두 11권을 가지고 와서 전하였으며, 또 수공인과 양공 및 직조공을 일본에 보내었다”고 하였다. 『日本書紀』에는 “應神天皇 15년 秋8월 壬戌朔 丁卯日에 백제왕이 阿直岐를 보내어 良馬 2필을 가져왔다고 하고, 應神天皇 16년 春2월 王仁이 일본에 와서 태자 菟道稚郎子の 스승이 되어 전적을 가르치어 통달치 않은 것이 없게 하였다”고 하였다.<sup>18</sup> 應神天皇 16년을 285년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일본서기』 應神天皇 16년에 “이 해에 백제 阿華王이 돌아가니 천황이 直支王을 불러서 ‘네가 나라에 돌아가 왕위를 계승하라’ 하고 보내주었다”고 한 문장을 근거로, 왕인이 일본에 건너간 해가 아화왕이 죽은 405년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sup>19</sup>

왕인의 행적은 일본을 방문한 남용익, 신유한, 조엄, 원증거 등의 조선 후기 통신사행원들이 17~18세기에 걸쳐 사행록에 왕인에 대해 기록하면서 조선에 알려지게 되었다. 18세기 이후로 실학자 이덕무, 한치윤, 김정희, 이규경 등은 왕인에 대해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들에 의해 체계화된 왕인에 관한 기술과 인식은 후대로 계승되었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일

18 류승국, 「백제박사 왕인 渡東에 관한 문헌적 고증과 그 의의」, 『학술원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50-1, 2011, 5쪽.

19 위의 논문, 11-12쪽; 최영희, 「백제 왕인박사에 대한 문헌고찰」, 『문화사학』 5, 한국문화사학회, 1996, 19-22쪽.

반적으로 확고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근대 이후 일본에서는 내선일체(內鮮一體),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의 상징으로 왕인 박사를 이용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왜곡되기도 하였다.<sup>20</sup>

왕인의 이름은 그간 우리나라의 지리지에서 보이지 않았는데, 이병연이 『조선환여승람』에서 처음으로 왕인이 영암 사람이라고 기록한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록이 어떤 문헌에 근거한 것인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현재 왕인의 묘는 일본 오사카부(大阪府) 히라카타시(枚方市)에 있다. 『조선환여승람』에 기록된 왕인의 도일(渡日) 시기가 정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편찬자가 왕인의 묘와 사당이 일본 오사카부(大阪府) 기타카와치군(北河內郡) 히라카타(枚方)에 있다고 적시한 것은 『조선환여승람』의 기록이 1920~30년대 당시 일본에서 확인된 지식과 견문에 바탕한 것임을 추정케 한다. 하지만 일본의 유적과 기록에는 왕인이 영암군 출신이라는 내용이 없다. 그렇다면 이병연이 왕인을 영암군의 인물로 기록한 것은 당시 영암군 일대에 전하는 전설 및 잡지 등에 근거하였을 가능성이 크다.<sup>21</sup>

현재 영암군 군서면 구림마을 동쪽 문필봉 기슭에는 왕인 박사 유적지가 조성되어 있다. 이 유적지는 『조선환여승람』의 ‘왕인’ 항목에 있는 내용과 지역 전설에 바탕하여 조성되었다. 현재 유적지에는 성기동을 왕인 박사의 탄생지로 하여, 왕인이 마셨다고 전해 오는 성천(聖泉), 유허비(遺墟碑)가 있고, 월출산 중턱에는 박사가 공부했다고 전해 오는 책굴(冊窟)과 문산재(文山

20 하우봉, 「조선시대 왕인에 대한 인식의 전개와 그 의미」, 『전북사학』 47, 전북사학회, 2015, 77-110쪽.

21 다만, 역사학계에서는 역사적 사료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때문에 왕인의 출생지가 영암군이라는 근거가 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할 것. 스나구찌 다이스케, 「확인되지 않은 과거에 대한 현대인들의 기억 만들기: 한일 양국의 왕인현창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8; 도진순, 「왕인 현창의 양면: 민족주의와 식민주의, 연계와 변주」, 『역사학보』 226, 역사학회, 2015, 187-225쪽.

齋), 양사재(養士齋) 등이 조성되어 있다. 서구림의 돌정 고개는 박사가 일본으로 떠날 때 작별을 아쉬워하면서 뒤돌아보았다 하여 ‘돌정 고개’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한다. 또한 상대포(上臺浦)는 박사가 일본으로 떠날 때 배를 탔던 곳이라 하여, 여기에 포구와 정자가 조성되었다.<sup>22</sup> 삼국시대에 백제의 영암 지역이 지식인들의 문화역량이 축적된 지역이며, 상대포를 포함하는 영암군이 삼국시대에 중국과 일본을 잇는 해상교통의 요충지였다는 점은 왕인과 영암의 관계를 연결 짓는 데 의외로 중요한 배경이 된다.<sup>23</sup> 이을호는 왕인의 출생지가 백제 영역 내에 있을 것이라는 상정 아래, 문헌상으로나 구비전설,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영암이 가장 유력한 곳이며, 이를 제외하고는 왕인 탄생지로 비정될 만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고 하였다.<sup>24</sup> 류승국이 선행 연구에서 『동국여지승람』의 영암군 ‘월출산조’에 있는 고려 명종조 김극기(金克己)의 시를 근거로 왕인이 영암 출신의 인물이라고 한 주장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sup>25</sup>

여하튼 영암군 지역사회에서는 왕인 박사를 영암군을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로 부각시키는 한편, 왕인 관련 유적을 지역의 관광사업 활성화와 연계

22 『영암왕인유적의 현황』, 왕인문화연구소·전라남도 영암군, 1986.

23 최몽룡, 「월출산지구의 문화유적」, 위의 책, 20쪽. 이외에도 문안식, 박광순 등은 상대포가 왕인의 영암 구림지역 출생설의 주요 근거가 된다고 하였다. 문안식, 「왕인의 渡倭와 상대포의 해양교류사적 위상」, 『한국고대사연구』 31, 한국고대사학회, 2003, 149-178쪽; 박광순, 「왕인박사의 도일시기와 경로」, 박광순·임영진·정성일 편저, 『왕인박사연구』, 주류성, 2013, 283-284쪽.

24 이을호, 「왕인문화의 역사적 배경」, 위의 책, 11-13쪽.

25 “상사께서 가시고 어디에 머무시는지 묘연한데(相師化去杳安住), 표표한 유풍은 천고의 세월 동안 남아 있네(颯爽遺風千古吹). 상사께서 지난날 홀로 머무를 뜻이 있어(相師平昔獨往意) 소나무 아래 석문에서 날로 거처하셨네(松下石闥日棲遲) (中略) 이옹(遯翁)이 머뭇머뭇 홀연히 나를 찾아왔네(遯翁質質忽訪我). 늙은 백발에 푸글푸글한 노인이로다(滿領鶴髮身鷄皮).” 류승국은 이 시구에서 ‘相師’의 주인공이나 “遯翁質質忽訪我”의 ‘遯翁’은 다른 아닌 ‘和遯師’이며, 이는 곧 왕인의 이명동인(異名同人)이라고 하고, 이 시를 통해 영암에 왕인의 자취와 기억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류승국, 앞의 논문, 6-7쪽).



시키고 있다. 이병연의 『조선환여승람-영암군편』의 왕인 관련 기록이 어떤 문헌이나 유적, 구비설화에 근거한 것인지 조사하는 것은 여전히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로 보인다. 지금의 상황으로는, 영암군의 왕인 설화를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하는 방식이 가장 시급하고 실현 가능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 위에서 영암군에 바탕한 왕인 박사의 유적지 및 스토리텔링이 좀 더 충분한 근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2) 신라인 도선 국사

도선국사(道詵國師, 827~898)는 통일신라의 승려로, 음양풍수설과 고려 왕건(王建)의 송도(松都) 천도 예언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지지편’의 최씨원, 국사암, 도선암, 도선국사비, 도갑사 등의 항목에 도선의 출생에 관한 전설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기술되어 있다.

명석(名釋) 편 도선국사 항목에는 출생에 관해, “영암인이다. 신라 진덕왕 말년에 낭주(朗州) 성기동(聖基洞)에서 출생하였다.”고 간략히 기술되어 있다.<sup>26</sup> ‘수비(豎碑)’ ‘도선국사비’ 항목에는 도선국사가 창건하였다고 하는 월출산 도갑사 및 도선국사비와 함께, 도선의 출생에 관한 설화가 기록되어 있다. 이와 함께 국사암 및 최씨원 항목에 있는 탄생설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 최씨원(崔氏園) 가운데에 오이를 심었는데, 한 자 정도의 큰 오이가 열리니 집안이 괴이하게 여겼다. 최씨 딸이 빨래하다 몰래 그 오이를 따 먹고 임신하여 아기를 낳으니 사내 아이였다. 그 부모가 딸이 처녀 몸으로 낳았기에 숲 속의 바위에 버렸다. 7일 뒤에 가보니, 수많은 비둘기가 날개

26 『국역본 조선환여승람-영암군편』, 235쪽.

로 덮어 보호하고 있었다. 이를 이상히 여겨 아기를 다시 데려다 키워 출가시키니 그가 도선이다.

도선 탄생전설에서 흥미로운 점은 그의 어머니 최씨녀가 ‘오이’를 따 먹고 임신했다는 이야기이다. ‘오이’는 남자의 성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오이를 따 먹는 것은 ‘결혼’, 또는 남녀의 ‘성적 결합’을 의미한다. 도선 탄생설화에서는 신성한 자의 후손이지만 부친의 혈통을 특정할 수 없었던 도선에 대해, 그의 모친이 오이를 먹고 잉태하였으며, 숲 속에 버려진 뒤에는 비둘기가 보호받았다는 전설을 통해 도선을 신성한 인물로 부각시켰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영암군에서는 도선의 어머니가 살던 집, 도선이 태어난 뒤 버려진 바위, 도선이 수련한 암자, 도선이 창건한 절 등이 보존되며 지명 전설로 연계되고 관련 지역이 명소화 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최씨원(崔氏園)은 영암군 서쪽 20리 성기동에 있는데, 도선국사 어머니가 살던 집이 있었던 자리이다.<sup>27</sup> 국사암(國師庵)은 영암군 서쪽 구림 마을 가운데 있는 바위이다. 도선의 어머니가 아기를 버린 숲 속의 바위가 바로 국사암이며, 비둘기가 날개로 덮어 아기를 보호하였으므로 마을 이름을 구림(鳩林)이라고 하였다. 도선암(道詵庵)은 현 서호면 가래골 마을에 있는데, 이는 계곡의 비탈길에 암자를 석축한 것이다. 이곳에서 도선이 공부하였으며, 바위에서 수련하였다는 전설이 전승되면서 그는 영암을 대표하는 또 한 명의 인물로 부각된다.<sup>28</sup>

이병연은 도선이 석가여래의 통안(通眼)과 미래사를 다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갖추고 있어 고려 500여 년의 터를 이루었다고 하였다.<sup>29</sup> 저자는 성

27 위의 책, 68쪽.

28 같은 책, 71쪽.

29 같은 책, 77-79쪽.

리학의 시각에서 영암군편의 인물과 지지에 관해 기술하였는데, 도선은 비록 불가의 인물이지만 지역의 신성한 인물이기에 도선의 비범한 탄생과 유적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 도선국사는 음양풍수설과 고려 왕건의 송도 천도를 주장해 유명해진 인물이다. 하지만 불교사에서 볼 때, 도선국사의 진면목은 신라 말기 당시 불교계에 새로운 분위기를 일으키고 있던 선종(禪宗) 계통의 승려라는 점에 있다. 그렇다면, 도선이 선승이면서도 산천지리에 깊은 관심을 두게 된 과정을 좀 더 천착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에는 도선의 선승으로서의 면모와 음양풍수설의 문화사적 기여,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평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묻고 답하는 과정이 있어야 도선의 역사적 평가가 좀 더 새로워질 것이라 기대된다.

#### 4. 맺음말

『조선환여승람』은 20세기 전반기, 충남 공주 출신의 유학자 이병연(李秉延)이 각 지역의 유림들과 협력하고 지역마다 보고원을 위촉하여 129개 군에 대한 인문지리서로 편찬한 책이다. 이 논문은 『조선환여승람-영암군편』에 기술된 영암군의 대표적 인물의 표상화 양상 및 현재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상에서 논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암 지역에는 16세기 중엽 이래로 남평 문씨, 거창 신씨, 전주 최씨, 천안 전씨, 경주 이씨, 밀양 박씨, 김해 김씨, 연주 현씨 등 대표 사족들이 영암 향교를 중심으로 1674년(현종 15)에 작성된 영암 향약의 주체로 활동하였다. 그런데, 『영암군편』에는 연주 현씨의 시조 현담윤을 비롯해 가문 인사 40명이 대거 등재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들의 항목에는 충효, 독서, 학문, 문인들과의 증유(從遊), 구휼 등의 행적이 주로 기술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당시 호남의 대지주이자 거부인 26세손 현준호 및 현씨 가문에서 영암군편의 편찬과정에서 출판경비를 후원하면서 자신들의 조상들을 대거 올리고, 행적을 미화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추론하였다. 이 점은 사찬 읍지 『조선환여승람-영암군편』의 일면을 잘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둘째, 『영암군편』에는 열녀로 칭송 받았던 24명 여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남편 사망 뒤 행동에 따라 생존형, 사망형, 두 유형으로 분류된다. 생존형은 남편이 사망한 뒤 부인이 살아서 가족을 봉양하고 자녀를 잘 교육한 사람들이다. 사망형은 남편이 사망한 뒤 부인도 따라 죽는 방식으로 사랑과 절의를 표현한 유형이다. 이 중, 사망형 열녀상이 1930년대의 시점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여성상으로 존속되고 있다는 점은 향촌 사회에서 여전히 구시대적 열 이념이 관습적으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영암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로 백제인 왕인 박사와 통일신라 도선국사가 부각된 점에 대해 현재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왕인이 영암의 사람이라고 명시한 것은 이 책의 기록이 사실상 처음이다. 비록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지만, 『영암군편』에 한 줄 기록이 있어 현재 왕인 박사 유적지 조성 및 현창 사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조선환여승람-영암군편』의 사찬 읍지로서의 일면을 보여준다. 도선은 음양풍수설과 고려 왕조의 송도 천도를 주장해 유명해진 인물이다. 오늘날에는 도선의 선승으로의 면모와 음양풍수설의 문화사적 기여,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평가 등에 대해 묻고 답할 수 있다면 도선의 현재적 의미가 좀 더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 1. 기본 문헌

- 『구림(鳩林)』, 사단법인 향토문화진흥원, 1992.
- 『국역본 조선환여승람 영암군편』, 영암문화원, 2007.
- 『烈女咸陽朴氏傳』, 『燕巖集』 卷之一.
- ‘연주 현씨’, 디지털영암문화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 이병연, 『조선환여승람-영암군편』, 1937.
- 이병연, 『조선환여승람 1~16』(영인본), 한국인문과학원, 1993.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 2. 연구 논저

- 도진순, 「왕인 현창의 양면: 민족주의와 식민주의, 연계와 변주」, 『역사학보』 226, 역사학회, 2015, 187-225쪽.
- 류승국, 「백제박사 왕인 渡倭에 관한 문헌적 고증과 그 의의」, 『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50-1, 대한민국학술원, 2011, 1-15쪽.
- 문안식, 「왕인의 渡倭와 상대포의 해양교류사적 위상」, 『한국고대사연구』 31, 한국고대사학회, 2003, 149-178쪽.
- 박광순, 「왕인박사의 도일시기와 경로」, 박광순·임영진·정성일 편저, 『왕인박사연구』, 주류성, 2013, 283-284쪽.
- 스나구찌 다이스케, 「확인되지 않은 과거에 대한 현대인들의 기억 만들기: 한일 양국의 왕인현창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논문, 2008.
- 이을호, 「왕인문화의 역사적 배경」, 박광순·임영진·정성일 편저, 『왕인박사연구』, 주류성, 2013, 11-13쪽.
- 최몽룡, 「월출산지구의 문화유적」, 박광순·임영진·정성일 편저, 『왕인박사연구』, 주류성, 2013, 20쪽.
- 최영희, 「백제 왕인박사에 대한 문헌 고찰」, 『문화사학』 5, 한국문화사학회,

1996, 19-22쪽.

하우봉, 「조선시대 왕인에 대한 인식의 전개와 그 의미」, 『전북사학』 47, 전북사학회, 2015, 77-110쪽.

허경진·강혜중, 「『조선환여승람(朝鮮寰輿勝覽)』의 상업적 출판과 전통적 가치 계승 문제」, 『열상고전 연구』 35, 열상고전연구회, 2012, 235-260쪽.

## Aspects of local characters representation of *Yeong-am-gun* section of *Joseon Hwanyeoseungram*

Hyeok-rae Kwon

*Joseon Hwanyeoseungram*(朝鮮寰輿勝覽) is a human geography book compiled by Lee Byung-yeon from 1929~40.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aspect of the figure and its present meaning of the characteristic character of Yeong-am County as described in the *Yeong-am-gun* section of *Joseon Hwanyeoseungram*. The results discussed above are as follows.

First, the representative families of Yeong-am-gun are described in the *Yeong-am-gun* section. Among them, 40 members of the Hyun clan of Yeonju are listed, spanning 20 generations. This is presumed to be related to the fact that Hyun Junho, a representative businessman in the Honam region in the 1930s, sponsored publication costs during the compilation process of the *Yeong-am-gun* section edition and exerted influence to honor ancestors.

Second, the name of 24 virtuous women is recorded in '*Yeong-am-gun*'. The 24 women are classified into two types: survival, death. Survival type women are those whose wives lived to support their families and educate their children well after their husbands died. Death type women are the type of expression of love in which a wife dies after her husband dies.

Third, this book is actually the first record to specify that Wang In was from Yeong-am-gun. Although it is pointed out that the basis is not clear, there is a line record in *the Yeong-am-gun section* that allows the current project to honor Dr. Wang In. It also shows one aspect of *Yeong-am-gun section of Joseon Hwanyeoseungram* as a geography compiled by an individual. There is also a need to comprehensively evaluate Tosun, a representative figure of Yeong-am-gun, for his aspects as a Zen monk, his contribution to cultural history of Yin-Yang Feng Shui theory, and his value from an ecological perspective.

Keywords: *Yeong-am-gun Section of Joseon Hwanyeoseungram*(朝鮮輿勝覽), Lee Byung-yeon, Yeonju Hyun's family, Hyun Junho, Virtuous Women, Wang In, Tosun